

『창세기 7회: 창세기 6:9-7:24』

1. 노아 이야기의 구조

홍수 이야기의 거울 이미지¹⁾

1. 하나님이 패역한 인류를 멸하고자 결심하심(6:11-13)
2. 노아가 방주를 지음(6:14-22)
3.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심(7:1-9)
4. 홍수 시작(7:10-16)
5. 홍수가 150일 동안 창일하고 산이 덮임(7:17-24)
6.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8:1)
7. 홍수가 150일 동안 가라앉고, 산이 보임(8:2-5)
8. 땅이 마름(8:6-14)
9.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심(8:15-19)
10. 노아가 제단을 지음(8:20)
11.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지 않기로 결심하심(8:21-22)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폭력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를 결심하셨습니다. 한편 노아에게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홍수가 임했고 온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를 기억하셨고, 홍수를 물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질서를 보존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입니다.

2. 의로운 노아(6:9-10)

성경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 ‘흠 없는 사람’(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흠이 없음은 사람의 행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노아가 주님께 의지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²⁾ 특히 성령께서는 홍수에서 노아가 구원받는 사건과 죽음에서 에녹이 구원받는 사건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핵심

1) Gray Edward Schnittjer, *The Torah Story*(Michigan: Zondervan, 2006), 박철현 역, 『토라 이야기』(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119.

2)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11: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6), 권대영 역, 『창세기 1』(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436-437.

어로 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³⁾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8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의롭고, 흠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증언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고, 흠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징을 **점진적으로** 갖추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3. 홍수의 원인(6:11-13)

11-13절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창 6:11-13)

이 단락에서는 **땅과 폭력, 가득함**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성경은 땅에 폭력이 가득한 것이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땅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가득하도록 의도된 장소였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폭력이 가득한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더해 창세기 6:12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고,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다고 언급합니다. 이 묘사는 땅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창세기 1:10, 31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땅과 피조물은 부패했고, 땅에는 폭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땅과 피조물에 질서를 부여하고 번성이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의 죄는 질서를 사라지게 만들고 폭력이 가득하도록 했습니다.⁴⁾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의 영역을 받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3)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Michigan: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239.

4)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서울: 솔로몬, 2019), 170.

로서 의로우며,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도외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중입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등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번성합니까? 아니면, 죄와 폭력이 번성합니까? 성경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곳에는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도록 늘 순종하기에 힘쓰시다.

4. 방주의 모습과 의미(6:14-17)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단어는 홍수 내러티브와 출애굽기 2장 3절, 5절에서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테바’는 모세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담기 위해 만든 바구니입니다. 노아와 모세가 방주로 연결된다면, 노아의 세상과 모세의 애굽은 물 심판으로 연결됩니다.⁵⁾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심판 이후 새 시대를 시작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 이후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짓는 방법에 관한 설명과 출애굽기 25-39장에서 성막을 짓는 방법에 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한 유사성을 지닙니다. 두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인간은 말씀을 수행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마치면,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만 거대한 선박을 지어야 했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야 했습니다. 그는 약 2만 5000평방미터를 칠해야 했습니다. 25평이면 75평방미터쯤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노아는 성실하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박을 지어야 했습니다.⁶⁾ 성경은 독자들에게 노아와 모세처럼 경건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⁷⁾

더 나아가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구조물은 방주와 성막, 두 개 뿐이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지음으로 혼돈의 물에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지음으로 혼돈의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⁸⁾

그리스도인은 노아와 모세처럼,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 Kenneth Mathews, 『창세기 1』, 444.

6) 정우준, 『창세기 I』 (서울: 부크크, 2019), 79.

7) John H. Sailhamer,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240.

8)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184.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순종은 가정의 구원, 직장의 구원, 교회의 구원, 친구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방주의 생김새도 살펴봅시다. 방주는 그 길이가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입니다. 이를 m로 환산하면, 길이는 약 134m, 넓이는 약 22m, 높이는 약 13.4m가 되며 중량은 43,000톤 정도입니다.⁹⁾ 방주의 소재는 고펀르 나무이며, 내부는 칸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 기능이 있었으며, 지붕과 창을 달아서 환기도 가능했습니다. 전체 구조는 3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홍수 설화 주인공인 우트나피쉬탐에게는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는 **선장이나 선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방주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고안된 **항해용 선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¹⁰⁾ 하나님이 선박의 선장이십니다. 노아는 ‘40일 동안’ 방주 안에 있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인도해**가십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시 131:1)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이루는 삶,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며 그 믿음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공한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내가 인생을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전진시키고, 인도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애쓸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가십니다.

5. 하나님의 언약(6:18-22)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한편, 노와와는 언약을 세우십니다.¹¹⁾ 이 본문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언약과 계약은 다릅니다. 계약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 관계를 의미하지만, 언약은 서로에게 충실하여서 친밀감을 얻고자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

9)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311.

10)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194.

11)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314.

다. 이 때문에 계약에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언약에는 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과 계약 모두 의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세워진 조건들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언약은 전존재의 충성을 요구합니다.¹²⁾ 언약의 핵심은 사랑 안에서 충성과 신실함으로 묶인 서로의 관계입니다.¹³⁾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노아와의 언약 체결은 9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은 노아를 방주에 들이심으로써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¹⁴⁾ 이 부분을 구약학자 베스터만은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노아는 방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명령 가운데 구원하시고, 명령 가운데 축복하신다.”¹⁵⁾

노아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충실하셔서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체가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22절은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임박한 홍수를 기다리면서 마른 땅에 배를 짓는 짓은 가능성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는 일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범입니다.¹⁶⁾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 은혜언약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인간이 하나님에게 전인격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언약 관계와 그 언약 안에서 합당한 행동을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¹⁷⁾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12) Elmer A. Martens, *God's Design: A Focus on Old Testament Theology*(Grand Rapids, MI: Baker, 1981), 72-73.

13)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Wheaton: Crossway, 2012), 김귀탁 역, 『언약과 하나님 나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03.

14)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197.

15) Westermann, *Genesis 1-11*(Minneapolis: Augsburg, 1984), 422

16) Kenneth Mathews, 『창세기 1』, 451.

17)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283.

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의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언약의 의무를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은혜언약은 인간의 공로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중보자의 사역, 영원히 계시는 성령에 기초합니다. 은혜언약은 인간의 그 어떤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공로에 따라 은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사람 편에서의 율법완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¹⁸⁾

은혜언약, 복음에는 요구도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것을 친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중생과 믿음과 회개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획득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 대우하시며,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에 관한, 이런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책임을 묻고 변명할 수 없는 존재로 세우시며, 의식과 자유를 지닌 존재로서 이 언약에 가입하고 범죄로 인해 언약이 파기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은혜언약을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은혜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언약을 유지하고 실현하십니다. 한편으로 은혜언약은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며,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수용하고 지키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식 가운데 선명하게 반사되어서, 인간의 의지가 힘있게 활동하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¹⁹⁾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히 충실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충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이렇게까지 언약에 충성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삶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한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7. 방주로 들어감과 하나님의 심판(7:1-24)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²⁰⁾ 하나님은 땅에

18)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Kampen: 1895),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3』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275.

19) Herman Bavinck, 『개혁교의학3』, 281.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악과 폭력이 가득해지자 창조를 해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누고 구별하셔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드신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셔서 **피조 세계를 창조 이전으로 돌리십니다.**²¹⁾

성경은 홍수의 근원을 ‘큰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11절)에서 찾습니다. ‘깊음’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창조 시에 땅을 덮고 있었던 ‘원시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땅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흑암과 깊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대응해서는 빛을 만드시고, 혼돈의 물에 대응해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혼돈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아직도 궁창 아래에 물이 가득 차서 인간이 거주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셋째 날 물을 한곳에 모으신 후 ‘바다’라 부르시고, ‘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²²⁾ 궁창 아래의 물은 ‘깊음의 샘’이고,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창문들’인데,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은 솟아나게 하시고(마치 터지듯이), 궁창 위의 물은 아래로 쏟으셨습니다(하늘의 창문에서 물을 붓듯이).

17-22절에서 하나님은 혼돈의 물이 어떻게 지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물이 온 세상을 덮고, 그 다음에 **높은 산을 덮고 난 후 마지막으로 새와 가축과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인간을 덮게** 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섯째 날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²³⁾ 하나님은 심판도 질서정연하게 하시면서, 창조를 해체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7장을 읽으면서 이미 온 세상에 심판이 임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과 이 심판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20)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289.

21)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259.

22)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255-6.

23) 김지찬,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263.